

의학도서관의 참고／정보 업무에 關한 小考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도서관

이 성 익

Reference / Information Services in Health Sciences Libraries

Sung - Eui Lee

Yonsei University Medical Center Library

I. 서 론

미국 의학도서관 조례 (Medical Library Assistance Act :MLAA)에 의하면 “의학도서관은 보건정보를 다루는 도서관 (Libraries concerned with health information)이다”라고 정의되어 있다.¹⁾ 보건정보라 함은 쉽게 말하면 보건 즉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의미할 수 있겠다.

보건 및 건강에 대한 개념이 과거에는 산아제한, 성병, 위생, 약물사용 등 극히 제한된 문제들에 국한되었으나 요즘에는 의료 이용자 운동 (consumer movement), 여성의 권리(women's rights), 자신의 건강관리 (self-care), 의료비 구성 (cost containment), 의료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청구 (malpractice claims), 만성질환에 대한 문제 (problems of chronic illness)...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정치적 관심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보건정보라 할 때 질병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들에 대한 정보들 모두를 가리킴이 타당할 것이다.²⁾

또한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세계적으로 의학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어 의학연구, 새로운 병

원의 건립 및 의과대학 등 의료교육기관의 설립, 등에 많은 투자를 해오고 있다. 이에따라 새로운 의료시설과 의료 인력의 확충이 많이 요구되고 갖가지 질병에 관한 연구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생산되는 정보의 양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고,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 역시 다양해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많이 생산되는 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많은 이용자들에게 원하는 정보를 제때에 제공해 주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Langner」는 최근 의학도서관 이용자들이 의학도서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요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적절한 도서관 업무와 저장 장소, 더 잘 훈련된 도서관 인력, 그리고 증가되고 있는 의학관계 문헌을 처리하여 분배하는 새로운 방안 모색등과 같은 요구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³⁾

「Brodmann」도 그의 논문 “Users of Health Science Libraries”에서 보건의료인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서 의료전달 (health care delivering)에 관계하고 있는 여러 그룹에 대한 서비스의 방향이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⁴⁾

이는 「Langner」나 「Brodmann」이나 모두 의학도서관의 질적으로 향상된 업무를 요구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교육, 연구, 진료가 의학 분야에서 제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업무라면 의학도서관도 이에 맞추어 그들이 봉사하는 영역에 마찬가지로 역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도서관이 정보를 저장하는 장소로써만 존재한다면 그와같은 情報源 (information sources)은 될 수 없다. 저장된 정보를 이용자에게 어떻게 배포하여 이용시키는 가가 더 큰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도서관은 정보의 저장능력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되며, 잠재적인 정보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용자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의학도서관 또한 의학도서관 이용자인 보건의료인들이 그들의 목적인 양질의 의료를 베풀고 또 학술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 요청하는 관련 문현들을 효율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고로 본 논문에서는 의학도서관의 참고／정보 업무를 살펴봄으로써 그와같은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삼고자 한다.

II. 의학도서관에 있어서의 참고／정보 업무의 실제

1. 참고／정보 업무의 개념

도서관의 참고 업무를 역사적으로 보면 1800년대 후반 「Samuel Green」의 “사서와 이용자간의 개인적인 관계”라는 정의로부터 비롯된다. 「Samuel Green」은 이용자에게 목록함을 만들어 줌으로써 도서관을 이용시키는 것으로서는 불충분하고 대신 이용자에게 도서관 자료(library tool)를 안내해주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생각은 거의 100년간 지속되었다. 그후 도서관은 “교육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으로 이해되기 시작하여 「Justin Winsor」등은 이용자로 하여금 참고자료를 찾는 습관을 들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자고 주장하였다.⁵⁾

「Menzel」은 적절한 정보를 신속하게 낭비없이 이용자의 편에서 전달되도록 하되 이용자가 미리 정해놓은 기준에 만족할만한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도서관 참고／정보 업무의 신속성, 효율성, 포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조직이 체계화 하여야 하고 정보처리와 배포과정이 기계화되어야 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정보요구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함을 확실히 하고 있다.⁶⁾

또한 「Vevrek」도 “참고업무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흐름에 (needed information flow) 도움을 주는 도서관 활동이다”라고 하면서 이용자와 사서 사이의 연속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사상을 기초로 하여 「Alan Rees」는 “참고업무는 이용자와 정보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변수들을 구체화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도서관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체 범위의 활동 영역이 참고 과정(reference process)에서 변수들로 생각되어져야 함을 의미한다.⁷⁾

「Thayer」는 모든 사서직에 공통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보고 커뮤니케이션의 속성 중에서 1 대 1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겉으로 보이는 행위와 관계인 인간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 (interpersonal communication)을 도서관의 참고업무의 요점으로 삼았다. 즉, 참고업무는 도서관 이용자, 이용자의 요구, 그리고 참고 전문가로 구성되어 이들 각 요소들을 인간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의 한 기본적인 모델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이론은 참고 업무의 성공 여부는 인간적인 요소들 사이의 상호관계나 도서관의 정보(자료) 구성에 달려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⁸⁾

지난번 도서관 및 정보업무에 대한 미국의 백악관 회의에서도 도서관 및 정보업무의 주제를 다음의 다섯가지로 요약하였다. 즉, ① 이용자의 요구 충족(meeting personal needs) ② 평생교육의 고취(enhancing lifelong learning), ③ 조직과 전문직의 개선(improving organization and the professions)

④ 사회의 계도 (effectively governing our society), ⑤ 국제적인 상호이해와 협조의 증진 (increasing int'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등이다.⁹⁾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서관의 참고/정보 업무는 도서관 이용자의 요구를 어느 수준까지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참고/정보 사서의 문제로 압축된다.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준다는 의미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도서관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용자로 하여금 도서관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이용자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2. 의학도서관의 참고/정보 업무

의학도서관은 장서 구입이나 이용자 면에서 볼 때 일반 도서관과 구별된다. 최근 보건정보의 개념이 확대되어 자료 및 이용자의 범위가 넓어졌다고는 하지만 의학도서관 정보와 이용자는 제한된 주제분야를 지니고 있다.

「Langner」는 의학도서관은 이용자들의 목적인 교육, 연구, 친료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완전한 뒷받침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¹⁰⁾ 그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의 여섯 가지 업무를 의학도서관에서 해야 할 중요한 업무로 택하고 있다. 즉, ① 교육업무, ② 도서관 전시업무, ③ 번역업무, ④ 서지업무 ⑤ 상호대차업무, ⑥ 도서관의 자동화를 들고 있다. 실제로 교육업무는 사서 교육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 도서관 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이용시키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사서와 이용자가 함께 일하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 수 있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도서관 선전업무를 특별히 하지 않아도 자연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본다. 서

지업무, 번역업무도 의학도서관에서는 특히 중요한 업무로 꼽아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고급 인력이 요구되므로 의학 서적 구입에도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는 시행되기 어려운 업무다. 상호대차업무는 의학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고 중요한 업무로 사료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의학도서관 협의회의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금 정보저장의 문제에서 정보배포의 문제로 전이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정보교환 업무는 아주 가치있는 업무다.

「Simpson」, 「Burda」등도 모두 「Langner」와 같은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도서관 목적 및 이용에 관한 안내 업무, 이용자의 정보 요구 파악, 상호대차 및 봉사업무, 컴퓨터화된 정보 검색 시스템, 도서관 장서 목록 발간, 도서관 자료 색인 및 파일 업무, …등의 업무가 의학도서관에서 해야 할 정보업무임을 밝히고 있다.

「Parkins」는 제 2 차 정보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과학, 기술분야의 초록 및 색인 업무를 아주 중요시 여기고 있다.¹¹⁾ 의학 분야에서는 이미 기존의 Index Medicus라는 색인지가 있어서 아주 유용하며, 도서관 자체내에서의 별도 색인 작업은 비용 및 시간상으로 보아 큰 효과가 없을 듯하다. 고로 의학도서관 이용자들은 관심분야에 관한 최근의 연구 결과 등을 알고자 할 때 정보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¹²⁾에 비추어 볼 때 이용자들에게 Index Medicus의 이용법을 강의하는 것도 의학 도서관의 중요한 참고/정보 업무중의 하나로 생각된다.

「Davis」는 의학도서관에서는 특히 정보의 최신성이 요구되므로 변화하는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재빨리 파악하여 이에 대처하는 것이 특별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¹³⁾ 도서관이 이용자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파악해야 할 근본적인 것은 이용자와 비이용자를 찾아내어 그들의 도서관 및 정보요구를 체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Horo”의 주장은 이용하면서 도서관 이용이 많지 않다면 왜 그런지 이유와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도

서관의 책임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규적이고 열성적인 도서관 선전 업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업무를 전담할 PR사서를 특별히 개발하여 도서관 이용안내, 서지사항에 관한 강의, 이용자 조사, 면담 및 도서관 활동에 관한 뉴스레터 발간 등을 통해서 이용자와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그려므로써 도서관은 변화하는 이용자의 요구를 빨리 발견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업무 계획을 세우고 이용자로 하여금 도서관을 더 많이 더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할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용의 편의성 (ease of use)”이라는 것이 여러 연구의 결과에서 밝혀진 바¹⁴⁾¹⁵⁾¹⁶⁾ 도서관의 편리한 이용방법을 개발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봉사하고 있는 도서관 업무를 선전해 주는 업무도 뜻지 않게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Davis」의 PR사서 개발 제의는 이런 의미에서도 그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Langner」가 제시한 도서관의 교육업무에 좀 더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제시한 것 같아 더욱 의미 있는 참고/정보 업무의 하나로 인정된다.

이상과 같이 도서관의 참고/정보 업무는 도서관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체 범위의 활동 영역이 모두 참고과정의 변수들로 생각되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참고/정보 업무를 수행함에는 특히 정보 이용자의 견해와 사서의 견해가 일치되어야만 만족스러운 참고/정보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인간의 행위와 관계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무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각 도서관이 속해 있는 학교나 병원, 그리고 그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도서관의 업무 자체에도 유동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효율적인 참고/정보 업무를 위하여 개발된 시스템들

본장에서는 참고/정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도서관들 나름대로 프로그

램을 고안하여 개발한 시스템들 중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 CIS(Clinical Information System)¹⁷⁾

Boston에 있는 Beth Israel Hospital의 정형외과에서 임상에 필요한 정보요구의 관리를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개발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다섯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자동화된 임상 파일 (automated clinical file) ② 임상 사서의 서비스 (clinical librarian service), ③ 과 도서실 (department library) ④ 정형외과 환자들을 위한 교육자료 (educational materials for orthopaedic patients) ⑤ 논문 준비에의 도움 (assistance in manuscript preparation)이다.

자동화된 임상 파일은 예측적인 임상연구 (prospective clinical studies)를 할 수 있도록 모아진 데이터 뱅크 (data bank)와 온-라인 환자 인덱스로 되어있다. 임상 사서의 서비스는 교육 및 환자 진료에 좋은 영향을 주며 과의 임상 자료 (clinical data)의 이점을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으므로써 논문작성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시스템은 의학사서, 임상 사서직 (clinical librarianship)의 개념을 발전시켜 종래의 도서관학 교육에 임상 사서로서의 특수한 경험을 덧붙여 효과적인 진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진료에 요구되고 보편화되고 있는 임상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근래에 병원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므로 임상 세계 (clinical setting)에 대해서 이해가 있고, 임상 데이터-베이스의 기획과 운영에 대한 지식이 있고, 또 과에서 임상진료의 결과로 나오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가진 임상 사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의학관계 정보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현 실정에서 볼 때 임상 사서는 의료팀의 한 멤버로서 과도하게 증가되고 있는 정보들 중에서 진료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신속하

게 제공해주어 양질의 의료를 베푸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CML(Clinical Medical Librarian) 및 LATCH(Literature Attached to Charts) Program¹⁸⁾

의학 지식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양질의 의료는 최근의 적절한 정보를 어떻게 빠리 입수하는가에 달려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고로 병원 도서관의 첫 번째 임무는 환자 진료를 돋기 위하여 의료팀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된 것이 CML과 LATCH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의료팀에게 종래의 참고 업무에다 정보패키지 ("Packaged" information)를 검색하여 전달해 주는 역할까지를 포함한다. LATCH는 환자의 임상카드에 환자의 진료 결과를 전달 기록하게 하며 그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그 환자의 임상 카드가 전달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임상 의학 사서는 진료팀의 한 멤버로 소속되어 그 팀을 위하여 정보를 검색해 주고 제공해준다. 이 프로그램은 도서관 서비스에 대하여 임상팀의 기대 수준까지 끌어 올릴 수 있고 사서가 임상 세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고 전문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확대된 역할을 할 수 있다.

「Clevesy」는 “도서관은 사서가 일하는 곳이다. 병원도서관의 효율성은 궁극적으로 그 병원이 속해 있는 전체 지역 사회의 정보요구를 충족 시켜 주는 방법과 범위에 의해서 측정되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이 CML 및 LATCH 프로그램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즉, CML 및 LATCH 프로그램은 양질의 의료제공에 필수적인 요건인 정보전달을 용이하게 하는데 가치있는 접근 방식이며, 의료 요구가 더 많은 지역사회, 병원도서관에까지도 확대 실시해 볼만한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FDDS(Faculty Document Delivery System)¹⁹⁾

도서관 이용의 주요점은 이용의 편의성(ease of use)이라는 이론을 기본으로 하여 컴퓨터 내에서의 정보의 접근방법 개선을 위하여 고안해 낸 한 방법이다.

제 1 차적인 시험방안으로 교수요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특정항목을 그의 연구실이나 과사무실에서 전화로 문의할 수 있게끔 하였다. 도서관에서는 그 요구사항을 서고에서 찾아 체크해 보고 요청자의 연구실이나 과사무실로 직접 응답해 주거나 배달해 주도록 하였다.

이 업무를 일정기간 동안 실시하여 업무의 수행정도와 이 업무에 대한 이용자의 태도, 이 업무에 드는 비용과 이 비용에 대한 이용자의 반응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이 업무의 수행정도에 대하여 대부분의 교수들은 그들의 일상적인 자료검색 등을 하는 시간에 다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더 많이 얻고 있어 교수들의 연구 활동에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도서관 이용에 대하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자료를 얻는 과정이 간편하고 편리하여서 도서관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비용에 대하여는 FDDS가 편리하기는 하나 사치스럽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용자도 9%나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수들은 그들의 평균 시간당 봉급과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찾고 검색하고 그의 사무실에 돌아오는 시간과를 비교하여 계산한다면 비용면에서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평을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FDDS는 이용자의 도서관 양태를 변화시켰고 비용면에서 FDDS에 드는 비용은 절약된 시간으로 대체될 수 있고 도서관의 분산된 자료를 이용하는 데의 불편한 점을 제거해 주는데 도움이 되었음이 밝혀졌다. 이 FDDS의 발상을 의학도서관에서도 한번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교육, 연구, 진료 업무를 동시에 해내야 하는 의료인들에게 도서관을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

써 그들의 목적 수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리고 이용자의 도서관 및 도서관 업무에 대한 인식을 높여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III. 결 론 및 제언

의학도서관은 의학도서관 이용자인 보건 의료인들이 그들의 목적인 양질의 의료를 배풀고 또 학술적인 연구를 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관련 문헌들을 효율적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에 그 목적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요구를 정확하게 재빨리 파악하여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의학도서관의 참고/정보 업무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최근 도서관은 적은 돈을 들여서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폭발”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하며, 현재의 기술을 최대로 활용하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여러 도서관등을 포함하여 지역적으로 다른 기관들과 협조하여 이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도전을 받고 있다.²⁰⁾

실제로 의학도서관에서도 의학관계 전문인들의 도서관 이용이 활발하지 못하다는 것, 특히 많은 의학관계 전문인들이 그 분야에서 알려진 것이나 알려지지 않은 것을 접근하는데 정보 접근의 공식적인 채널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재빨리 파악하여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때에 제공해주고,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이 활발하지 못하다면 왜 그런지 이유와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도서관의

책임이다. 도서관의 참고/정보 업무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준다는 의미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도서관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도서관에 가는 이유가 대부분이 “특별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나 “중복을 피하기 위한 문현조사를 위해서”라고 하면서도 공식적인 채널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도서관 이용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이를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방법이 어려워서”라고 한다면 도서관을 이용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안의 모색이 절실히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살펴본 FDDS, CIS, CML 등 시스템들이 범국가적이거나 범세계적이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의미에서 그 의의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도서관의 참고/정보 업무는 이용자와 사서간의 인간적인 상호관계와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서와 이용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개선되어야 한다. 의학도서관에서 사서는 의료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므로써, 또 의료인들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므로써 그들의 교육, 연구, 진료 업무를 위하여 완전한 뒷받침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문 의학 사서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 자질 있는 전문의학 사서들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들의 교육 및 훈련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아울러 이를 전문 의학 사서들에게 전문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도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1. Kaufman, Ann: "The extramural programs of the NLM", in Proceedings of the Third 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Chapel Hill, Carolina Population Center, University of Carolina, 1971.
2. Eakin, Dottie, et al: "Consumer health information: libraries as partners". Bulletin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68(2):220-229, Apr. 1980.
3. Langner, Mildred C.: "User and user services in health sciences libraires: 1945-1965". Library Trends, 23(1):7-30, July 1974.
4. Brodman, Estelle: "Users of health sciences libraries". Library Trends, 23(1):63-72, July 1974.
5. Wyner, Bohdan S.: "Reference theory: situation hopeless but not impossible." College & Research Libraries, 337-342, Sept. 1967.
6. Menzel, Herbert: "Planned and unplanned scientific communication", 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cientific Information, Washington, 1958. Proceedings, Vol. 1, pp.199-243.
7. Vavrek, Bernard F.: "A theory of reference service". College & Research Libraries, 508-510, Nov. 1968.
8. Vavrek, Bernard F.: "The nature of reference librarianship". RQ, Spring; 213-217, 1974.
9. Gell, Marilyn K.: "Washington and beyond: the White House Conference on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an overview of the White House Conference and its improtance to all librarians". Social Media Quarterly, 8(1): Fall, 1979.
10. Langner, Mildred C.: op. cit.
11. 이 성 의 : 의사들의 정보요구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석사학위 논문, 1978.
12. Parkins, Phyllis V. and H. E. Kennedy: "Secondary information services", ASIS, 6:247-275, 1971.
13. Davis, Barbara B.: "User needs: the key to changing library services and policies". Bulletin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63(2):195-198, Apr. 1975.
14. Fishenden, R.M.: "Methods by which research workers find information", 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cientific Information, Washington, 1958. Proceedings, vol. 1.
15. Ford, G.: "Progress in documentation: research in user behavior in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Documentation, 29(1):85-106, 1973.

16. Rosenberg, V.: "Factors affecting the preferences of industrial personal for information gathering methods". *Information Storage & Retrieval*, 3(3):110-129, July, 1967.
17. White, Augustus A., et al: "Clinical information coordinator: a new information specialist role for medical librarians". *Bulletin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68(4):367-369, Oct. 1980.
18. Clevesy, Sandra R.: "A modified clinical medical librarian program for the community hospital". *Bulletin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68(1):70-71, Jan. 1980.
19. Dougherty, Richard M.: "The evaluation of campus library document delivery service". *College & Research Libraries*, 29-39, Jan. 1973.
20. Maina, William E., et al.: "The CLR/NLM Health Sciences Library Management Intern Program". *Bulletin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68(1)16-24, January 1980.